

Mar 16, 2020

 Weekly Summary

Drybulker	중국의 회복 vs 세계의 충격
Tanker	유가전쟁으로 운임급등
Container	유가 급락, 치킨 게임(공급량 급증) 재점화 서막 여나?
Sale & Purchase	조용한 시장 / 중고 탱커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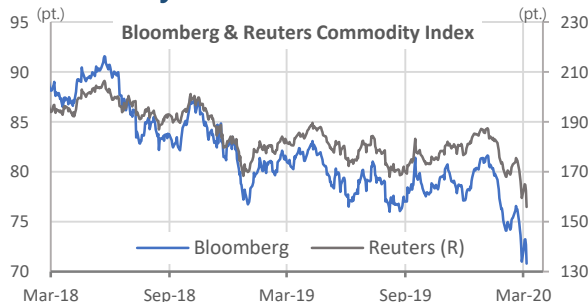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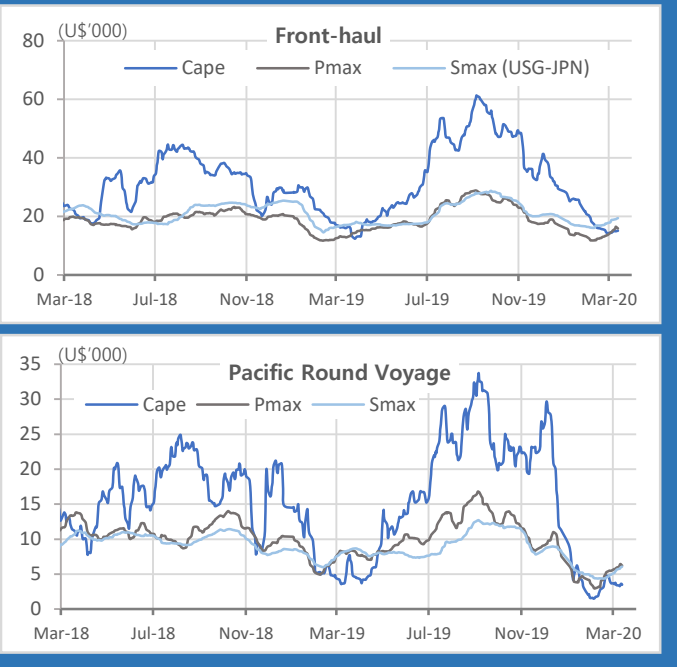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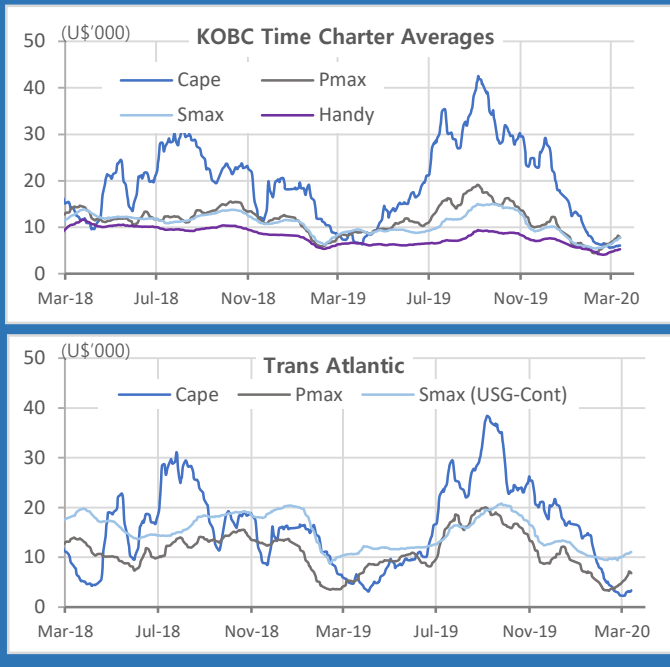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해양강국! 해양인민국!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금 주	6,072	15,100	3,312	3,500	7,793	15,820	6,780	6,225	7,841	19,438	11,025	6,076
전 주	5,834	14,762	2,800	3,429	7,506	15,140	5,800	5,942	7,127	18,862	10,650	5,653
증 감	▲ 238	▲ 338	▲ 512	▲ 71	▲ 287	▲ 680	▲ 980	▲ 283	▲ 714	▲ 576	▲ 375	▲ 423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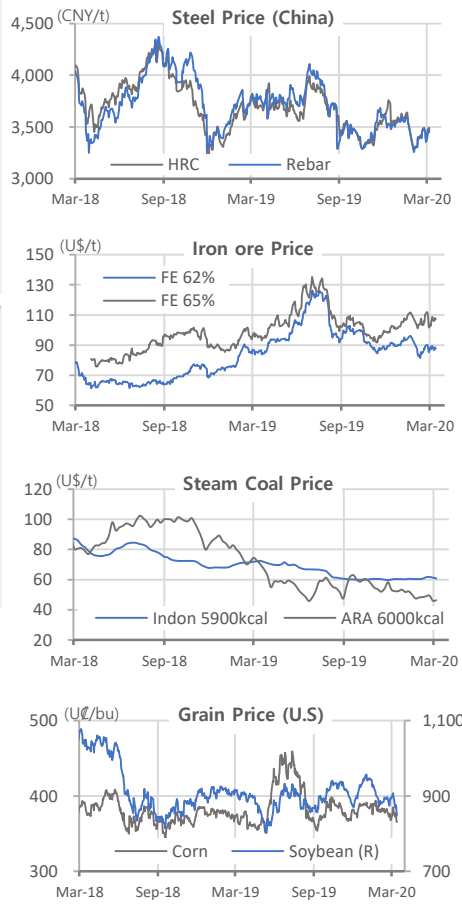
- 선복 공급이 부족한 대서양 내 F/H 석탄 오더의 유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차분한 회복세 지속
- 중국 내 철강 가격 상승 및 철강 후방산업의 회복이 꾸준히 나타나는 점은 철광석 수요를 촉진시켜 Cape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러나 중국의 철강 생산 마진이 여전히 부진하게 이어지며, 제철소들은 가격이 저렴한 저품질 철광석의 사용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음
- 주 중반 WHO가 코로나 19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하며, 세계 주요 증시 폭락 등 거시경제 충격이 발생함. 이는 건화물선 FFA 시장에도 하락압력을 가하는 한편 실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향후 현물 해운시장에 대한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PANAMAX

- 파나마스 시장의 거의 유일한 상승 동력이던 남미 곡물의 신규 오더가 감소하는 한편, Ballaster들이 남미 수역으로 지속 유입되며 대서양 중심 하락세
- 그동안 중국항 석탄 물동량 부진 등 태평양 수역 내 화물 부족으로 남미항 Ballaster가 증가함. 이에 더해, 최근 발생한 유가 폭락으로 선박 연료유 가격이 하락하여 선주들의 Ballasting 비용 부담이 감소한 점도 남미항 선박 공급 과잉을 촉발
- 브라질의 올 시즌 대두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브라질의 선적 활동을 제한하던 기후 요인도 개선되며 남미의 곡물 수출은 공격적으로 지속될 전망. 그러나 저유가를 바탕으로 한 Ballaster 유입 증가 및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이 상승세를 제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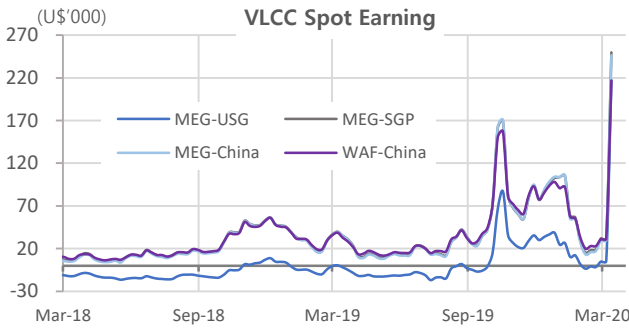
SMX-HDY

-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및 국제유가 폭락 등 외부 요인들의 굵직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감
- 중국의 석탄 수입 제한조치가 확산되는 양상이나, 중국 이외 지역으로 운송되는 석탄 물동량이 지속 발생하며 태평양 수프라막스 시황 회복을 주도. 시황 저점 인식에 따른 Period 수요 지속 및 NOPAC 곡물의 꾸준한 유입도 시황을 지지함.
- 그러나 남미 수역 내 파나마스 공급 과잉이 발생하며 수프라막스에도 하락 압력이 전이되고 있음. 또한 유가 하락으로 선주들의 Ballasting 부담이 감소한 점도 특정 수역의 선박 공급 부족을 빠르게 해소하여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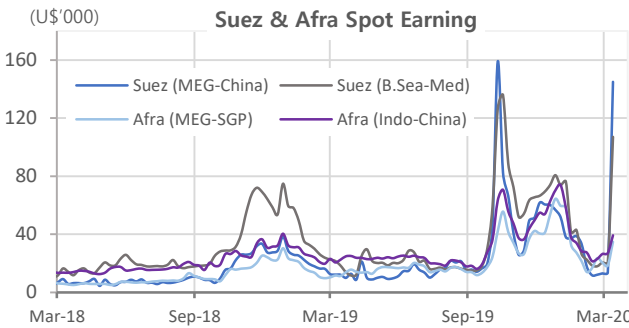
VLCC



- 사우디가 원유 증산 및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한 후, 시장 내 약 20여 척의 선박을 일시에 용선하여 급격한 선박 공급 부족 발생
- 주간 총 60여 건의 성약이 보고되며 평소 수준 대비 150%의 거래량 발생
- 운임은 U\$200,000/day 수준으로 전주대비 700% 급등
- 저유가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비축유 확보 수요 유입 및 원유가격 Contango 형성에 따른 Storage 수요 증가로 당분간 강세장 유지 전망

Route	MEG-USG		MEG-S'pore		MEG-China		W.Africa-China	
W/Scale	206.82	▲ 176.41	224.58	▲ 175.00	217.50	▲ 168.87	195.00	▲ 146.00
일 평균 수익	217,113	▲ 212,130	249,717	▲ 217,854	246,584	▲ 216,592	216,918	▲ 185,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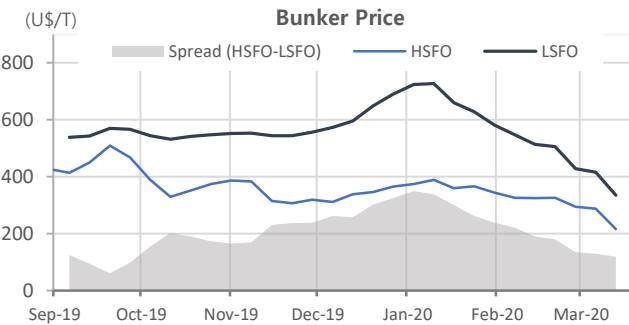
Suezmax & Aframax



- (Suezmax) VLCC 운임 급등에 따른 화물 Split 수요 증가하며, 중동에서 서아프리카로 상승세 확산
- 중동 항로 운임은 일 U\$140,000/day 수준으로 전주 대비 900% 상승
- (Aframax) 주 초 화물 유입 제한으로 비교적 정체된 장세가 나타났으나, 주 후반 서서히 상승세 전환
- 상위 선종 대비 상승 동력이 다소 느리게 전이되는 중이나, 금주 상승폭 확대 예상

Route	Suezmax				Aframax			
	MEG-China		W.Africa-Conti.		MEG-F.East		S'pore-China	
W/Scale	330.00	▲ 260.00	219.09	▲ 142.95	135.83	▲ 37.77	115.00	▲ 17.50
일 평균 수익	144,913	▲ 131,400	107,085	▲ 86,415	34,834	▲ 16,342	39,218	▲ 12,186

Bunker Price



- (국제유가) OPEC+의 감산합의 실패에 이은 사우디, UAE, 러시아의 증산 전쟁으로 유가는 US\$30/bbl 초반까지 폭락
-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가 원유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이어지며 낙폭 확대
- (연료유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가격 하락세 지속
- 유조선 등의 해상운임 회복으로 연료유 수요 일부 증가하였으나, 원유가 하락분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
- 유종간 스프레드는 U\$119/mt로 축소

구 분	WTI (US\$/bbl)	HSFO (US\$/mt)	LSFO (US\$/mt)	Spread (US\$/mt)
Price	31.73	215.00	334.00	119.00
증 감	▼ 9.55	▼ 72.00	▼ 81.50	▼ 9.50

※ Singapore 기준, 전 주 대비 증감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 운임지수(SCFI) / 용선지수(HRCI)



▶ 항로별 운임지수

	금주	전주	+/-	'20평균	+/-
美서안	1,610	1,361	▲ 249	1,493	▲ 117
美동안	2,912	2,679	▲ 233	2,814	▲ 98
유럽	827	830	▼ 3	923	▼ 96
지중해	903	915	▼ 12	1,053	▼ 150
동남아	191	191	-	189	▲ 2
중동	1,009	958	▲ 51	1,079	▼ 70
호주	771	835	▼ 64	887	▼ 116
남미	1,460	1,580	▼ 120	1,828	▼ 368
일서안	225	225	-	224	▲ 1
일동안	240	240	-	239	▲ 1
한국	117	117	-	118	▼ 1
동서Africa	2,924	2,939	▼ 15	2,897	▲ 27
남Africa	978	1,019	▼ 41	1,064	▼ 86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용선 성약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약 주차
피더 700	C	6개월	5,500	▲ 200	3월1주
피더 1,100	A	5개월	5,800	▼ 1,000	2월4주
피더 1,600	A	8개월	7,500	▼ 2,000	3월1주
피더 2,200	B	3개월	7,950	▼ 4,500	3월1주
피더 2,700	A	4개월	8,500	▼ 1,000	3월1주
내로우빔 5,000	A	11개월	12,000	▼ 1,600	2월4주
와이드빔 5,500	A	10개월	18,000	-	3월1주
중형 7,000	A	3개월	29,250	▲ 9,500	2월4주
중형 9,000	A	12개월	29,000	▲ 500	2월4주

*A: '04년 이후 / B: '00~'04년 / C: '00년 이전 **직전 성약 대비

▶ 시장 동향

- (종합) 11주차 SCFI' 종합지수는 '912pt. 중국 정부의 생산·물류 정상화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유가하락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로 선복량 회복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WHO의 팬데믹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상화물운송시장 내 반등 요소 포착
- (미주항로) 북미 서안과 동안 모두 아직까지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M의 전례 없는 북미항로 내 19k-23k TEU급 컨선 투입 발표를 기점으로 예상보다 빨리 주간 공급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
- (유럽항로) 강력한 임시결항 영향으로 주간 선복량이 크게 줄었으나 중국발 출하 물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3/15부 시행 예정이었던 GRI 캔슬되며 화물 집하경쟁 지속 / 현재 부킹 시 선복부족 이슈는 없으나 임시결항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 (연근해 및 기타) 중국항발 물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선사사 화물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중국 외 지역의 추가화물 확보 과열 분위기는 당분간 스팟운임 상승 압력을 제한할 전망

▶ 주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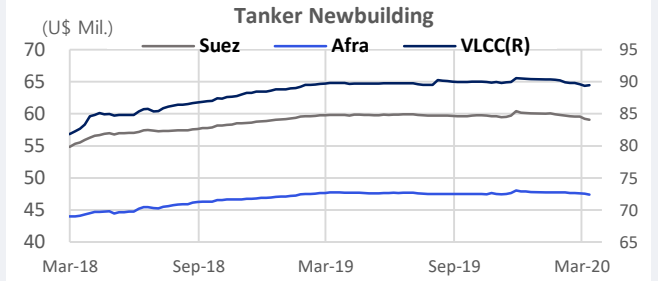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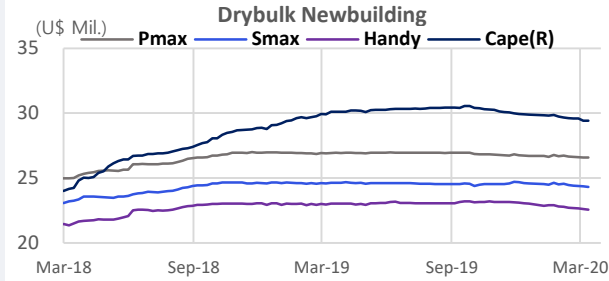
- 『2M(머스크 & MSC), 북미서안 공컨테이너(Empty Box) 회송 위해 2만 TEU급 초대형선 단발성 배치』 (JOC - 2020.3.10)
 - 임시결항 증대에 따른 채적효과 중 하나로 LA항·롱비치항에 공장비 적체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하여 2M은 '물량폭증에 의한 Empty수급악화를 미연에 방지코자 메가컨선을 임시 투입(추가기항: 19k TEU급 MSC Oscar - 3/8 LA항 도착 / 교환배치: 14k TEU급 투입 중인 북미서안 서비스 일부에 19k-23k TEU급 3척 - 3월말 한시적)하여 특별 회송을 실시한다'고 발표
- 『3월 첫째 주 유류 컨선복량 240만 TEU 돌파, 지난 달 역대 최고치 재경신』 (알파라이너 - 2020.3.11)
 - 지난 달 비가동 컨선복량(204만 TEU 총 374척, 2/17 기준)이 글로벌 위기('09년 금융위기 152만 TEU / '16년 한진해운 파산 159만 TEU) 이후 최고 수준을 돌파했으나 9-10주차에 5k TEU급 이상 중대형선 중심의 임시결항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재경신(246만 TEU 총 402척, 3/2 기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예년 수준의 공급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코스코, 그룹사 OOIL(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imited) 통해 23k TEU급 5척 발주 확정』 (로이드리스트 - 2020.3.11)
 - 글로벌 3위 컨선사 코스코(총 운영선대 290만 TEU로 전 세계 컨선복량의 12.3% 차지, 3/12 기준)는 '18.8월 인수한 OOIL을 통해 23k TEU급 신조 5척 확정(전량 중국 조선소 발주) 발표. 이로써 향후 유럽항로 내 동선형으로만 구성된 3개 단독 서비스 가능

※ 자료: 상해항운교역소, Howe Robinson, 주요 전문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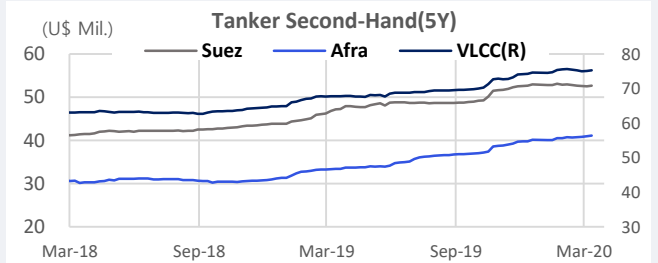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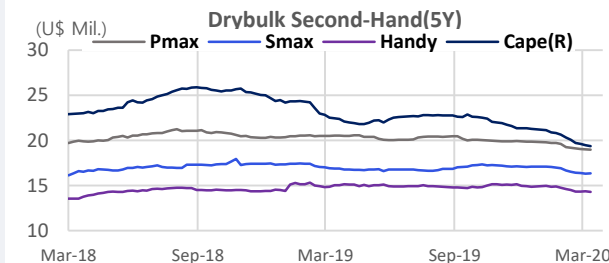
Newbuilding & Resale Pric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49.41	▼ 0.01	49.65	50.13	49.31	▲ 0.01	49.76	50.61
	P'max	76-82K	26.58	▼ 0.01	26.66	26.90	26.40	▼ 0.01	26.56	26.92
	S'max	56-61K	24.30	▼ 0.06	24.46	24.58	25.32	▼ 0.01	25.45	25.57
	Handy	32-37K	22.55	▼ 0.05	22.74	23.06	22.09	▼ 0.06	22.29	22.69
Tanker	VLCC	310K	89.46	▲ 0.10	89.92	89.79	99.35	▼ 0.08	100.54	94.60
	Suezmax	160K	59.10	▼ 0.11	59.67	59.75	68.36	▲ 0.02	69.17	64.82
	Aframax	105K	47.39	▼ 0.15	47.67	47.59	53.58	▼ 0.05	53.76	4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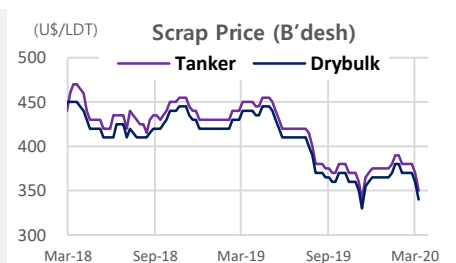
Secondhand Pric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Drybulk	Cape	180K	29.38	▼ 0.09	30.20	32.56	20.03	▼ 0.07	20.56	22.77
	P'max	76-82K	18.96	▼ 0.04	19.34	20.26	12.14	▼ 0.11	12.51	12.96
	S'max	56-61K	16.34	▲ 0.01	16.68	16.99	11.61	▼ 0.08	11.75	12.33
	Handy	32-37K	14.30	▼ 0.06	14.59	14.97	7.97	▼ 0.08	8.30	9.88
Tanker	VLCC	310K	75.23	▲ 0.14	75.16	69.28	50.02	▼ 0.17	51.00	45.69
	Suezmax	160K	52.68	▲ 0.15	52.78	48.51	35.68	▲ 0.12	35.49	31.79
	Aframax	105K	41.09	▲ 0.12	40.63	35.55	29.18	▲ 0.05	28.86	23.52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0평균	'19평균	금주	+/-	'20평균	'19평균
Bulker	360	▼ 10	379	387	340	▼ 20	368	398
Tanker	370	▼ 10	389	397	350	▼ 20	378	408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MS



KOBIC Drybulk Panelists

	ILDO Chartering Corp.		Jangsoo Shipping Co., LTD.		Flaship PTE. LTD.		Maritime Shipbrokers Co., LTD.
	Daesang Shipping Co., LTD.		Basim Chartering Corp.		Max-Bridge Co., LTD.		Greatwall International Marine LTD.
	Ace Chartering Corp.		Kaya Shipping Co., LTD.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ipbroking Services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Co., LTD.		MARS CO., LTD.		Evershine Consulting CO., LTD.		
	Ocean Robin Shipping Holding Corp.		Good Turn Transportation LTD.				

KOBIC S&P Panelists

	Gyro Maritime Co., LTD.		Click Maritime Limited		Hanwon Maritime Co., LTD.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PTE. LTD.
	Kims Maritime Co., LTD.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Co., LTD.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Global		HIT Marine Company LTD.		Reshamwala Shipbrokers
	Forocean Shipbroking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KOBI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Tienfung Shipping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Alliance Tanker Chartering

KOBI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CO LTD.		Euroline Global
	Tradlinx						